

보건정책에 있어 학술지의 역할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

The Role of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Eun-Cheol Park

Editor-in-Chie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Health policy is the governmental decision contained with the objectives to achieve the desirable health and the tools to achieve them. The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could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health policy process—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ing, and policy evaluat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undertaking the role of an academic society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ill strengthen its role in health policy.

보건정책은 '바람직한 보건의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1]. 정책의 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로 진행되며 한국보건행정학회지는 정책의 전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는 정책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쟁점(issue)화를 통해 의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행정학회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보건의료문제 중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정책문제 파악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첫 단계인 정책쟁점을 발굴한다. 정책문제는 객관적 상태일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권위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 축조된 주관적 판단일 수 있기에[2], 보건행정학회지는 지면을 통한 토론의 장을 제시하여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정책문제 중 일부만 정책화되고 있는데, 정책문제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창문(policy window)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Kingdon [3]에 의하면 정책창문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리게 되는데, 보건행정학회지는 이 정책창문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회지의 역할은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교화함에

있어 보건행정학회지의 역할은 중대하다. 정책창문이 열리는 시기는 예측이 어려우나, 정책화를 위해서는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 정책창문이 열릴 때 비로소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평가는 보건행정학회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정책과정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전 정책과정 중 전문가의 역할을 가장 필요로 한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시기뿐만 아니라 정책이 집행되고 있을 때에도 진행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에 보건행정학회지는 이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것은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지는 발간 때부터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기여해 왔다. 이에 새로운 편집장으로서 보건행정학회지의 정책 기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자료관찰(data observation)'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논문을 게재하여 주된 보건의료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았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 중 사망률 1위인 자살 관련 지표, 보건의료접근도의 대표적 지표인 미충족의료율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4], 그리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positive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Correspondence to: Eun-Cheol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1862, Fax: +82-2-392-8133, E-mail: ecpark@yuhs.ac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를 게재하였다[5,6]. 이 중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중요한 지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대개 예측할 수 없는 정책창문의 시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특정 시기에는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이기에 건강보험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토론의 장으로서, 그리고 보건행정을 발전시키는 학문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rd ed. Seoul: Kyechuk Munwhasa; 2017.
2. Dery D. Problem definition in policy analysis.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4.
3. Kingdon J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Boston (MA): Longman; 2011.
4. Kang MS, Jang HS, Lee M, Park EC. Sustainabilit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J Korean Med Sci 2012;27 Suppl:S21-S24. DOI: <https://doi.org/10.3346/jkms.2012.27.S.S21>.
5. Park EC, Jang SI. The diagnosis of healthcare policy problem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2;55(10):932-939. DOI: <https://doi.org/10.5124/jkma.2012.55.10.932>.
6. Jang SI, Nam JM, Choi J, Park EC. Disease management index of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as a tool for setting priorities in national disease control using OECD health data. Health Policy 2014;115(1):92-99. DOI: <https://doi.org/10.1016/j.healthpol.2013.11.007>.